

가족의례와 아내의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ituals and Marital Satisfaction for Wives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최혜정**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노인생활환경연구소

교수 · 연구원 김득성***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

Master : Choi, Hye-J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Ecology for the Elderly, Pusan National Univ.

Professor · Researcher : Kim, Deuk-S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examine the tendency in what kinds of activities are carried out as family rituals; what kinds of obstacles there are; and why any problems, if any, tend to arise. Second, the study seeks to discer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ituals and wives' marital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the study surveyed 251 wives who had fourth, fifth, or sixth grade children and resided in Busan, and then analyzed the data obtained from the surve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Regarding the dinner ritual, it turned out that a majority of subjects had a difficult time establishing a regular ritual due to 'their busy schedule at work' and 'children's studying at academies'. For the weekend leisure ritual, in the case of difficulty in spending this kind of time it tended to be because of the wives' 'busy schedules at work' and 'lack of mutually available time for all family members'. In birthday rituals, when wives reported having trouble with her family members regarding birthdays, they explained that this was most often 'because family members forget their birthday'. Finally, when the subjects reported problems related to tradition rituals, it was mainly because of 'stress from the burden of housework'
- (2) In every dimensions including occurrence, routine, deliberateness, attendance, affect, and symbolic significance, the top-ranked group showed a high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ir marriage.

▲주요어(Key Words) : 가족의례(family ritual),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I.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은 가족관계에서 정서적 만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밝힌 여러 연구들(유계숙, 2004; 유영주, 2004; Stinnett & DeFrain, 1985)은 가족이 함께 질적 시간을 보내기와 가족이 함께 식사하거나 여가시간 등의 생활시간 공유하기를 하나의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 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됨을 시사한다. 그런데 박민자(2006)는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임.

** 주 저 자 : 최혜정 (E-mail : sleepzzz@hanmail.net)

*** 교신저자 : 김득성 (E-mail : deskim@pusan.ac.kr)

가족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하는 활동을 하는 것에는 그다지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족구성원이 가족유대를 지속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가족은 서로에 대한 관심을 점차 잃게 되고(Doherty, 1997) 이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가족의 유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하는 기회를 만들고 실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처럼 가족에게 의미있는 활동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이러한 활동을 지속해가는 것을 가족의례라 한다.

가족의례는 어느 사회집단에서나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문옥표, 1997)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시작된다. 첫째는 관혼상제와 같이 문화적 전통의 일환으로 세대 간에 전달되어오는 방식이 있으며, 둘째는 가족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 나름의 의례를 창출해 내는 방식이 있다(Bossard & Boll, 1950). 전통사회에서는 유교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이은봉, 1998) 문화적 전통의 일환으로 전달되어온 관혼상제를 중시하였다(옥선화 등, 1998). 하지만 오늘날에는 핵가족화 및 현대화로 관혼상제의 형식과 절차는 간소화되고 서양화(문옥표, 1997; 박혜인, 2001; 옥선화 등, 1998)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에게 의미있는 의례를 창출하여 가족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례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김밀양, 2004). 이러한 현대 가족문화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례 변화 추이에 맞추어 가족의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 차원에서 의례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나 지금까지 가족의례에 대한 연구(문옥표, 1997; 박혜인, 2001; 옥선화 등, 1998, 2000; 이기숙, 2003; 이정우·김명나, 1993)는 주로 관혼상제의 실태와 사회적 의미를 밝히는 데 치중하여 현대 가족의례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대적 관점의 가족의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가족의례는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 중에서 가족문화 변화에 따른 가족의례 추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저녁식사, 주말여가, 생일 그리고 명절의 네 가지 가족의례 종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였다.

가족의례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지만 그 이면에는 의례를 실행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이 느끼는 감정, 의례에 부여하는 의미와 같은 주관적 측면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Jones, 1973; 정현숙·유계숙, 2006, 재인용). 주관적 측면은 의례를 실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부분이므로 의례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적 측면 뿐 아니라 주관적 측면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Fiese와 Kline(1993)은 가족의례의 구성요소로 정규성(Occu-

rence)²⁾, 관습성(Routine), 계획성(Deliberateness), 참여 기대(Attendance), 감정적 투자(Affect) 그리고 의미 부여(Symbolic significance)를 제시하였다. 이들 구성요소는 가족의례의 행동적 측면 뿐 아니라 주관적 측면까지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여섯 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가족의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가족의례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가족의례의 경향을 파악함과 더불어 가족의례 종류별로 주로 어떤 의례 활동을 하는지,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 갈등이 발생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둘째, 최근 가족관계에서 정서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부부간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김민녀·채규만, 2006). 가족의례는 가족 간 결속력을 높이고(Fiese, 1992) 친밀감을 증진시키며 심리적 만족감을 높인다(Fiese et al., 2002; Leon & Jacobvitz, 2003). 현경자와 김연수(2002)는 가족을 통해서 받는 정서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의 근원이 된다고 하였는데, 가족의례는 정서적 지지 기능이 있으므로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가족의례의 경향을 살펴본다.

둘째, 가족의례 종류별 주요 활동과 장애 요인(또는 갈등이유)에 대한 경향을 살펴본다.

셋째, 가족의례 종류에 따른 아내의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밝혀 아내의 결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의례

1) 가족의례의 정의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분명하고 정확한 정의가 요구되지만 가족의례를 조작적으로 정의내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Wolin & Bennett, 1984). 의례인지 아닌지는 가족구성원들 스스로가 정의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별적인 면이 가족활동과 모임에 특별한 의미를 제공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여러

1) 저녁식사와 주말여가는 가족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활동 중 일부를 의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족의례로 명명하였다.

2) Fiese와 Kline(1993)이 제시한 구성요소 중 발생 빈도(Occurrence)는 얼마나 자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지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규성으로 명명하였다.

연구자들은 의례를 정의내리고 통합하고자 애를 써 왔다.

Doherty(1997)는 가족의례를 반복적이고 조직된 활동으로 가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고, Kiser와 동료들(2005)은 가족의례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복잡한 행동적 실행으로 정의하였다. Imber-black과 동료들(1988)은 가족의례를 모든 가족구성원 혹은 대다수의 가족구성원이 참여하는 가족활동으로 가족구성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 그 활동이 계속되기를 원하도록 참가자들에 의해 가치가 부여되는 활동이라고 하였고(John, 1990), Valenti(1997)는 관계, 변화, 치유, 믿음, 축하의 성질을 갖는 반복적인 활동으로 가족의례를 정의하였다. 정현숙과 유계숙(2006)은 가족의례를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반복적이고 공동으로 행해지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가족의례는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이며, 참여자는 한 사람이상의 가족구성원이고, 일회적이지 않고 반복성을 가지며,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축하, 믿음, 치유, 관계 등)를 가진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례를 대다수의 가족구성원이 참여하는 반복적인 활동으로 가족에게 의미가 있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2) 가족의례의 분류

가족의례는 저녁식사와 같이 특유의 가족현장에서부터 문화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setting)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Wolin과 Bennett(1984)은 가족의례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패턴화된 상호작용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의식적인 계획은 가장 적은 의례로 식사시간, 취침시간, 주말여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생일, 기념일과 같은 가족전통은 문화적으로는 특별하지 않지만 가족구성원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례이다. 가족 축하의식은 휴일을 비롯해 결혼식, 종교적 휴일, 추수감사절 같은 문화적 행사들이 포함된다. Fiese와 Kline(1993)는 Wolin과 Bennett(1984)의 분류를 참고로 하여 가족의례를 저녁식사, 주말, 휴가, 연중의식, 특별한의식, 종교의식, 문화적 민족적 전통으로 구분하였다. Leon과 Jacobvitz(2003)는 Wolin과 Bennett(1984), Fiese와 Kline(1993)의 분류를 종합하여 가족의례를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식사시간, 취침활동, 주말, 휴가가 포함되는 일상적 가족상호작용, 휴가, 생일, 기념일이 포함되는 가족전통, 졸업식,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생애주기사건에 대한 특별한 의식, 그리고 특별한 문화적 민족적 전통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eon과 Jacobvitz(2003)의 분류를 기준으로 가족의례의 종류를 구성하고자 한다. 단, 가족의례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게 융통성있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연구대상자의 자녀연령이 초등학교 고학년임을 고려하여 취침활동, 졸업식, 결혼식, 장례식을 제외하고, 가족전통 중에서는 오늘날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 기념일인 생일을 대표적으로 포함시켰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저녁식사, 주말여가, 생일, 명절의 네 가지를 가족의례 종류로 구성하였다.

3) 가족의례의 구성요소

Fiese와 Kline(1993)은 가족의례 구성요소를 정규성, 역할, 관습성, 참여 기대, 감정적 투자, 의미 부여, 지속성, 계획성으로 밝혔다. 정규성은 가족의례가 얼마나 자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지 정도, 역할은 가족의례 실행 시 가족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역할과 의무, 관습성은 정해진 행동패턴이 있는지 여부, 참여 기대는 가족의례에 가족구성원들의 참여를 기대하는 정도, 감정적 투자는 가족의례에 대한 가족구성원들의 감정적 투자, 의미 부여는 가족의례에 대한 상징적 의미 부여, 지속성은 가족의례가 세대에 걸쳐 지속해왔는지 여부, 계획성은 가족의례에 관련된 준비와 계획을 의미한다.

이들 여덟 가지 요소들이 가족의례의 주요 구성요소로 포함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족의례는 반복적인 활동으로 계획성을 가지며, 역할과 관습성을 통해 실행되고(Bossard & Boll, 1950), 가족은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의례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지 관심을 가진다(Bennett et al., 1988; Fiese & Kline, 1993, 재인용). 그리고 가족의례를 통해 경험하는 감정적 측면과 상징적 의미에 초점을 두며(Fiese & Kline, 1993), 특히 상징적 의미는 의례 효과의 핵심으로써 van der Hart(1983)는 공허한 의례가 되지 않도록 상징적 의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가족의례는 세대에 걸쳐 실천과 믿음이 지속되며 의례를 통해 느꼈던 상징적 의미와 효과 또한 세대에 걸쳐 지속된다(Fiese, 1992)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구성요소 중 정규성, 관습성, 계획성, 참여 기대, 감정적 투자, 의미 부여의 여섯 가지 구성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역할 요소를 제외한 이유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아내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녀의 나이가 어려 가족의례를 위해 가족구성원들이 역할을 분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속성 요소는 원가족에서 실행한 가족의례가 결혼 후 형성한 가족에서도 실행하게 되며 의례를 통해 느끼는 상징적 의미 또한 세대에 걸쳐 지속된다고 가정하지만 이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부족하고, 또한 현재 세대에서의 가족의례만 살펴보는 데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은 요소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2. 결혼만족도

1) 결혼만족도의 정의

결혼만족도는 개인이 현재의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개념(양순미·정현숙, 2006)으로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학자들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개념 정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견해는 결혼만족도를 주관적인 측면으로 다루는 것으로서 Hawkins(1968)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배우자의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정의하였고, Hichs와 Platt(1970)는 결혼만족도를 자신의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태도로 보았다(김민녀, 2004). 이 외에도 결혼만족도를 자신의 결혼에 대한 즐거움, 만족, 행복 등의 주관적 경험반응(Burr et al., 1979)이라고 정의하거나 주어진 시점에서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얼마만큼 좋아하고 싫어하는가 하는 선호의 태도(Roach et al., 1981)로 정의내리고 있다.

상기한 견해들과는 달리 두 번째 견해는 결혼만족도에 대한 정의를 객관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서 Lewis와 Spanier는 결혼만족도란 한 개인이 결혼에 대한 기대수준과 실제로 받는 보상 사이의 일치 정도로 보고 있다(김화자·윤종희, 1990).

이상의 두 견해 중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을 각 배우자가 자신의 결혼생활 전반에 대해 느끼는 만족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으로서 결혼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양순미·정현숙, 2006)하여 객관적 측면이 아닌 주관적 측면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2) 가족의례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가족의례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부부 공유활동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가족의례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가족의례는 가족에게 의미있는 활동을 가족이 함께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부가 함께 여가활동을 보내거나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는 등의 부부 공유활동은 가족의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White(1983)는 부부가 식사, 쇼핑, 친구방문, 외출, 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고(이기영 등, 1995), Bryant와 Wang(1990)은 혼자서 여가, 식사와 가사활동을 하기보다는 부부가 함께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이기영 등, 1995). Duvall(1977)은 직장인들이 휴일이나 휴가에 더 많은 시간을 부부가 같이 보내면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결혼생활에 결속되는 느낌을 준다고 하였고(안동선, 1982), Orthner(1975)는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커질 때 관계 내의 의사소통이 증가하고 이해가 증진되어 부부가 함께 여가에 참여하는 것이 혼자서 참여하는 것보다 더 기능적이고 결혼만족도를 높인다고 하였다(이기영 등, 1995).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부부 간의 공유활동은 그 자체로서 의미있을 뿐 아니라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부 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는 가족의례는 결혼만족도와 정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며 조사 당시 초등학교 4, 5, 6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251명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로 한정한 이유는 자녀가 중학생 이상이 되면 학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가족활동이 줄어들므로 가족의례를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연령은 35~40세 미만이 46.6%로 가장 많았고, 40~45세 미만이 32.7%, 45세 이상이 13.1%, 35세 미만이 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학력은 고졸 이하가 40.6%, 대졸 이상이 14.1%, 전문대졸이 12.7% 순이었고, 남편학력은 고졸 이하가 33.5%, 대졸 이상이 27.1%, 전문대졸이 11.6%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은 201~300만원이 33.4%, 101~200만원이 23.2%, 401만원 이상이 22.8%, 301~400만원이 16.7%, 100만원 이하가 1.6%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45.5%가 '중'으로 인식하였고 '중하'가 33.9%, '하'가 9.6%, '중상'이 8.0%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55.8%는 전업주부였고, 38.2%만이 취업을 한 상태로 나타났다. 직업은 판매/서비스직이 1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결혼기간은 '10-15년미만'이 62.9%로 가장 많았고 결혼상태는 부부 둘다 초혼인 경우가 94.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가족형태는 88.8%가 핵가족이고 자녀수는 2명이 69.3%로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1) 가족의례 척도

가족의례 척도는 Fiese(1992)의 가족의례 질문지(Family Rituals Questionnaire : FRQ)를 본 연구주제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한국정서에 맞게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Fiese(1992)의 FRQ는 저녁식사, 주말여가, 휴가, 연중의식, 특별한의식, 문화적 민족적 전통에 대한 질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 저녁식사, 주말여가는 그대로 사용하였고, 휴가, 특별한의식은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므로 제외하였으며, 연중의식은 생일로, 문화적 민족적 전통은 명절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의례 척도의 구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저녁식사, 주말여가, 생일, 명절의 4개 종류별로 각각 6개의 구성요소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며 총 24문항이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례의 실행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51

변 인	구 분	빈도(%)	변 인	구 분	빈도(%)	
아내연령	35세 미만	15(5.9)	결혼기간	10년 미만	8(3.2)	
	35~40세 미만	117(46.6)		10년~15년 미만	158(62.9)	
	40~45세 미만	82(32.7)		15년~20년 미만	60(23.9)	
	45세 이상	33(13.1)		20년 이상	14(5.6)	
	무응답	4(1.6)		무응답	11(4.4)	
아내학력	고졸 이하	102(40.6)	남편학력	고졸 이하	84(33.5)	
	전문 대졸	32(12.7)		전문 대졸	29(11.6)	
	대졸 이상	43(14.1)		대졸 이상	68(27.1)	
	무응답	74(29.5)		무응답	70(27.9)	
주관적 경제수준	하	24(9.6)	가계소득	100만원 이하	4(1.6)	
	중 하	85(33.9)		101~200만원	59(23.2)	
	중	114(45.4)		201~300만원	84(33.4)	
	중 상	20(8.0)		301~400만원	42(16.7)	
	무응답	8(3.2)		401만원 이상	57(22.8)	
아내 취업여부	비취업	140(55.8)	아내직업	전업주부	140(55.8)	
	취 업	96(38.2)		단순노무직	7(2.8)	
	무응답	15(6.0)		생산/기능직	6(2.4)	
결혼상태	둘다초혼	238(94.8)		판매/서비스직	32(12.7)	
	둘다재혼	4(1.6)		소규모자영업	13(5.2)	
	아내초혼+남편재혼	4(1.6)		사무직	12(4.8)	
	아내재혼+남편초혼	2(.8)		전문기술직	23(9.2)	
	무응답	3(1.2)		고위전문직	3(1.2)	
자녀수	1명	39(15.5)		가족형태	핵가족	223(88.8)
	2명	174(69.3)			확대가족	23(9.2)
	3명 이상	36(14.3)	무응답		5(2.0)	
	무응답	2(.8)				

<표 2> 가족의례 척도 구성

구 분	정 의
가족의례 종류	
저녁식사의례	가족이 함께 하는 저녁 식사를 의미한다.
주말여가의례	주말이나 휴일에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활동을 의미한다
생일의례	가족의 생일과 관련된 가족활동을 의미한다
명절의례	명절과 관련된 가족활동을 의미한다.
가족의례 구성요소	
정규성	가족의례가 얼마나 자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가
관습성	정해진 행동패턴이 있는가
계획성	가족의례와 관련된 준비와 계획
참여 기대	가족의례에 가족구성원들의 참여를 기대하는 정도
감정적 투자	가족의례에 대한 구성원들의 감정적 투자 정도
의미 부여	가족의례에 대한 상징적 의미 부여

출처 : Fiese & Kline(1993)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저녁식사의례 Cronbach's $\alpha = .82$, 주말여가의례 Cronbach's $\alpha = .88$, 생일의례 Cronbach's $\alpha = .92$, 그리고 명절의례 Cronbach's $\alpha = .95$ 이었다.

2) 가족의례 실태조사 문항

가족의례 실태조사 문항은 가족의례 종류별로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 갈등이 발생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등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1) 가족의례의 주요 활동³⁾

가족의례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가족의례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단, 매주 어느 정도 가족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저녁식사의례에 한해서만 횟수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주요 활동 측정 문항은 현재 가장 선호하고 있는 활동으로 저녁식사의례는 외식, 집에서 직접요리, 배달음식 주문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주말여가의례는 근교나들이, 공원(놀이동산), 외식, 스포츠(등산 등), 문화생활(영화, 연극 등), 종교생활, 부모님 댁 방문, 가족봉사활동, 쇼핑 및 장보기, 게임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며, 생일의례는 케익, 선물(꽃)이나 용돈, 애정 표현이나 덕담, 부부외식(데이트), 가족외식, 카드(편지), 깜짝 파티, 생일상차리기, 친구초대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 가족의례 장애 요인(또는 갈등 이유)

가족의례의 장애 요인(또는 갈등 이유)를 측정하기 위해 가족의례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장애 요인 측정 문항은 현재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제들로서 저녁식사의례는 일이 바빠서, 떨어져 살아서, 공동의 시간부족, 자녀학업 문제, 가족갈등, 의식부족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주말여가의례는 일이 바빠서, 몸의 피로, 비용부담, 공동의 시간부족, 자녀학업 문제, 가족갈등, 의식부족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갈등 이유 측정 문항은 현재 주요 이유로 부각되고 있는 주제들로서 생일의례는 가족들이 있어버림, 약속 불이행, 형식성, 의견 불일치,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음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명절의례는 남편의 이해부족, 가사부담, 비용부담, 시간부족, 친척들과의 인간관계, 남편의 친절과 시택에 대한 태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3)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 척도는 Schumm과 동료들(1983)의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을 수정한 정현숙(1996)의 RKMS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문항으로 결혼생활에 대하여, 배우자로서 남편에 대하여, 남편과의 관계에 대하여, 아버지로서의 남편에 대한 만족 정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95$ 이었다.

3) 가족의례 중 명절의례는 주요 활동을 측정하지 않았다. 명절의례는 친척집 방문, 차레지내기, 전통음식 먹기 등 그 활동이 이미 관습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집은 부산시에 소재한 2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4, 5, 6학년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설문지 응답방법과 주의점을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아동의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아동을 통해 응답한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초등학교 4, 5, 6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눈덩이 표집하였다. 조사는 2009년 3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 총 360부를 배포, 289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하게 된 설문지와 이혼, 사별, 별거 중인 가정 그리고 조손가정을 제외한 251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 Alpha계수)를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의례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범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가족의례 종류에 따른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é검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가족의례 구성요소의 경향

가족의례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가족의례 구성요소의 평균, 표준편차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가족의례 구성요소의 평균은 정규성, 관습성, 계획성에 비해 참여 기대, 감정적 투자, 의미부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례를 실행함에 있어 정기적으로 정해진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즐거움과 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경향성 때문에 가족의례는 참여하는 가족구성원에게 친밀감, 결속감,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기능(Fiese, 1992; Fiese et al., 2002; Leon & Jacobvitz, 2003)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의례 종류별 구성요소의 평균은 저녁식사의례의 감정적 투자(4.34점)가 주말여가의례나 생일의례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즉 가족이 함께 저녁식사를 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가 주말여가의례나 생일의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식사가 실제로 가족에게 미치는 효과가 주말에 여가를 보내거나 생일 이벤트를 하는 등의 의례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식사를 하고 나면 옥시토

<표 3> 가족의례 종류별 구성요소의 기술통계치

N=251

구성요소	가족의례				
	저녁식사 M(SD)	주말여가 M(SD)	생일 M(SD)	명절 M(SD)	총점* M(SD)
정규성	3.66(1.12)	3.70(1.16)	4.43(.83)	4.52(.88)	23.12(4.06)
관습성	3.59(.95)	3.24(1.20)	4.22(1.01)	4.09(1.05)	21.57(4.26)
계획성	3.09(1.06)	3.16(1.14)	3.71(.89)	3.66(1.16)	20.16(4.59)
참여 기대	4.19(.94)	3.97(1.06)	4.50(.74)	4.37(.88)	25.22(3.95)
감정적 투자	4.34(.85)	3.95(1.07)	4.22(.88)	3.72(1.06)	23.94(4.10)
의미 부여	4.12(1.00)	3.93(1.07)	4.31(.88)	3.66(1.12)	23.69(4.25)

*점수범위는 6~30임

<표 4> 저녁식사의례의 횟수, 주요 활동과 장애 요인의 기술통계치

문항	구분	빈도*	%
저녁식사의례 횟수	안 함	2	0.8
	한달에 1~2번	26	10.4
	한달에 3~4번	46	18.3
	일주일에 2~3번	82	32.7
	거의 매일	94	37.5
저녁식사의례 주요 활동	집에서 직접요리	203	81.9
	외식	35	14.1
	집에서 배달음식 주문	10	4.0
저녁식사의례 장애 요인	일이 바빠서	55	27.6
	자녀 학원공부 등의 이유로	51	25.6
	직장문제로 따로 떨어져 살아서	36	18.1
	교대근무 등 부부간 시간이 맞지 않아서	31	15.6
	가족공동의 시간을 갖기 어려워서	24	12.1
	특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2	1.0

*해당없음과 무응답로 인해 전체 사례수가 차이가 있음

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특히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을 때 그 양이 증가하여 만족감과 행복감까지 느끼게 되기(SBS, 2009) 때문으로 보여진다.

2. 가족의례 종류별 주요 활동과 장애 요인(또는 갈등 이유)의 경향

가족의례에서 어떤 의례 활동을 주로 하는지,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 갈등이 발생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등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의례 종류별로 주요 활동과 장애 요인(또는 갈등 이유)을 빈도와 백분율로 살펴보았다.

1) 저녁식사의례

저녁식사의례의 횟수, 주요 활동, 장애 요인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표 4>에 제시하였다.

저녁식사의례로 주로 하는 활동은 '외식(14.1%)'하거나 '배달음식을 주문(4.0%)'하기보다는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경우가 81.9%로 나타나 대다수 가정에서는 주로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가족저녁식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녁식사의례의 횟수는 일주일에 2~3번 이상 하는 경우가 70.2%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달에 3~4번 이하로 하는 경우가 28.7%로 전체 응답자의 4분의 1정도를 차지하여 현대의 바쁜 생활 속에서 가족구성원들이 저녁식사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부족한 가정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저녁식사의례를 정규적으로 하기 어려운 이유는 '일이 바빠서'와 '자녀 학원 공부 등의 이유'가 53.2%로 나타났고 '특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는 1.0%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아내가 가족이 함께 저녁식사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바쁜 일과와 자녀의 학업문제로 인해 함께 저녁식사를 정규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주말여가의례

주말여가의례의 주요 활동, 장애 요인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표 5>에 제시하였다.

주말여가의례로 주로 하는 활동을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전반적으로 '외식', '근교나들이', '종교생활', '쇼핑 및 함께 장보기'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게임'과 '가족봉사

<표 5> 주말여가의례의 주요 활동과 장애 요인의 기술통계치

문 항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 도*		빈 도*		빈 도*	
		빈 도*	%	빈 도*	%	빈 도*	%
주말여가의례 주요 활동	외 식	48	19.1	43	17.1	31	12.4
	근교 나들이	45	17.9	41	16.3	35	13.9
	종교생활	42	16.7	7	2.8	2	0.8
	쇼핑/함께 장보기	39	15.5	52	20.7	41	16.3
	스포츠활동	21	8.4	20	8.0	18	7.2
	부모님택(친척집 포함) 방문	20	8.0	19	7.6	32	12.7
	문화생활(영화, 연극 등)	12	4.8	19	7.6	31	12.4
	공원(놀이동산)가기	5	2.0	17	6.8	8	3.2
	게 임	4	1.6	7	2.8	3	1.2
	가족봉사활동	0	0.0	0	0.0	3	1.2
주말여가의례 장애 요인	가족 공동의 시간 갖기 어려워서				59		25.3
	일이 바빠서				57		24.5
	몸이 피곤해서				51		21.9
	경제적 부담 때문에				42		18.1
	자녀양육 및 교육 때문에				14		6.2
	특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5		2.2
	평소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3		2.2

*해당없음과 무응답로 인해 전체 사례수가 차이가 있음

<표 6> 생일의례의 주요 활동과 갈등 이유의 기술통계치

문 항	구 분	남편 생일		아내 생일		자녀 생일	
		빈 도*		빈 도*		빈 도*	
		빈 도*	%	빈 도*	%	빈 도*	%
생일의례 주요 활동 (복수응답)	챙기지 않음	4	1.6	31	12.4	3	1.2
	케 익	186	75.0	171	68.4	224	90.0
	생일상 차리기	167	67.3	79	31.6	164	65.9
	가족외식 및 가족식사	159	63.3	151	60.2	155	61.8
	애정표현(말,포옹,덕담)	114	46.0	101	40.4	94	37.8
	꽃/선물주기	112	45.2	98	39.2	191	76.7
	용돈주기	-	-	-	-	82	32.9
	카드(편지)쓰기	50	20.2	44	17.6	57	22.9
	부부외식/데이트	45	18.1	52	20.8	-	-
	친구초대	26	10.5	27	10.8	114	45.8
	깜짝파티	15	6.0	12	4.8	24	9.6
생일의례 갈등 이유	남편, 자녀가 내 생일을 잘 잊어버려서				35		36.8
	형식적으로 치뤄버리는 것 같아				23		24.2
	나를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17		17.9
	내가 원하는 축하방식이 아니어서				15		15.8
가족들이 약속을 잘 어겨서				1		1.0	

*해당없음과 무응답로 인해 전체 사례수가 차이가 있음

활동'의 빈도는 매우 적게 나타났다.

주말여가의례를 정규적으로 하기 어려운 이유는 '몸이 피곤해서(21.91%)'와 '경제적 부담 때문에(18.1%)'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가족 공동의 시간을 갖기 어려워서(25.3%)'와 '일이 바빠서(24.5%)'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특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는 2.2%에 그쳤다. 대부분의 아내가 가족이 함께 주말여가를 보내는 의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나 가족 공동의 시간을 갖기 어렵고 일이 바빠서 혹은 몸이 피곤해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함께 주말여가를 정규적으로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음을 알 수 있다.

3) 생일의례

생일의례의 주요 활동과 갈등 이유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7> 명절의례의 갈등 이유의 기술통계치

구 분		빈 도*	%
명절의례 갈등 이유 (복수응답)	가사부담에 따른 스트레스(육체적 피로감 등)	102	40.6
	경제적 부담이 커서	46	18.3
	남편이 내 어려움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33	13.1
	친척들과의 인간관계문제 때문에	32	12.7
	남편이 친절에 잘 가려고 하지 않아서	16	6.4
	남편이 무조건 시택편만 들어서	14	5.6
	시간 부족 때문에	8	3.2

*해당없음과 무응답으로 인해 전체 사례수가 차이가 있음

남편생일(98.4%), 아내생일(79.6%) 그리고 자녀생일(98.8%)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생일의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아내생일이 12.4%로 남편과 자녀생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아내생일이 다른 가족구성원의 생일보다 다소 소홀히 다루지고 있는 가정문화를 엿볼 수 있다.

남편, 아내와 자녀의 생일의례에서 주로 하는 활동을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선택하도록 한 결과, '생일상 차리기'가 남편과 자녀생일에는 각각 67.3%와 65.9%로 주된 생일의례 활동에 속하는 반면, 아내생일에는 31.6%로 주된 생일의례 활동이 되지 않았다. 생일상 차리기는 주로 아내가 맡아서 하는 활동이므로 아내가 자신의 생일을 위해 생일상을 차리는 경우가 적음을 보여준다.

생일의례와 관련해서 아내가 갈등을 겪는 주된 이유는 '내 생일을 남편과 자녀가 잘 잊어버려서(36.8%)'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내의 생일의례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내가 자신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지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명절의례

명절의례의 갈등 이유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표 7>에 제시하였다.

명절의례와 관련해 아내가 남편과 갈등을 겪는 주된 이유(복수응답)는 '가사부담에 따른 스트레스(육체적 피로감 등)'가 40.6%로 가장 높아 가사부담 문제가 명절에 겪는 주된 갈등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경제적 부담(18.3%)'이나 '남편이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13.1%)' 혹은 '친척들과의 인간관계 문제(12.7%)' 등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아내는 명절을 통해 가사노동 부담과 가부장적 계급관계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절은 흠어져 있던 가족이 만나 유대감을 확인하는 전통적 함의를 갖는 의례이다(정현숙·유계숙, 2006). 이러한 함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족구성원의 협조를 통해서 아내의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가족의례 종류에 따른 아내의 결혼만족도

먼저 아내의 결혼만족도 실태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4-20점의 점수범위에서 평균점수가 14.26점으로 아내의 결혼생활이 대체로 만족스러움을 알 수 있다.

가족의례 종류별 실행정도에 따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족의례 종류별로 정규성, 관습성, 계획성, 참여 기대, 감정적 투자, 의미 부여의 점수를 상·중·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 간에 결혼만족도의 평균값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집단을 구분하는 방식은 가족의례 종류별로 정규성에서 의미 부여에 이르는 각각의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사람은 하집단, '보통이다'에 응답한 사람은 중집단, '다소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은 상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가족의례 종류에 따른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저녁식사의례의 실행정도에 따라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저녁식사의례의 정규성, 관습성, 계획성, 참여 기대, 감정적 투자, 의미 부여가 높은 상집단과 낮은 하집단 간에 차이를 보여 저녁식사의례의 실행정도가 높은 집단의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말여가의례의 실행정도에 따라라도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말여가의례의 정규성, 관습성, 계획성, 참여 기대, 감정적 투자, 의미 부여가 높은 상집단이 낮은 하집단보다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말여가의례의 실행정도가 높은 경우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생일의례에 따른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생일의례의 정규성, 계획성, 참여 기대, 감정적 투자, 의미 부여가 높은 상집단과 낮은 하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생일의례의 실행정도가 높은 집단의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일의례의 관습성에 따라서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더 검증이

<표 8> 아내의 결혼만족도의 기술통계치

N=251

구 분	평 균	표준 편차	범 위	최소값	최대값
결혼만족도	14.26	3.85	4-20	4	20

<표 9> 가족의례 종류에 따른 아내의 결혼만족도의 평균차 검증

변 인	가족의례	구성요소	구분	(N)	M(SD)	F값
결혼 만족도	저녁식사 의례	정규성	하	(44)	13.07(3.35)b	10.62***
			중	(63)	12.92(3.73)b	
			상	(133)	15.18(3.75)a	
		관습성	하	(30)	12.37(3.67)b	17.12***
			중	(70)	12.70(3.58)b	
			상	(140)	15.34(3.57)a	
		계획성	하	(75)	12.88(3.23)b	6.84**
			중	(79)	14.86(3.88)a	
			상	(86)	14.74(4.00)a	
	주말여가 의례	참여 기대	하	(19)	12.00(2.71)b	8.17***
			중	(20)	12.00(3.78)b	
			상	(201)	14.63(3.79)a	
		감정적 투자	하	(6)	11.33(3.98)a	7.70**
			중	(30)	12.10(3.68)a	
			상	(204)	14.59(3.72)a	
	의미 부여	하	(14)	11.14(3.44)b	15.35***	
		중	(46)	12.26(2.59)b		
		상	(180)	14.93(3.84)a		
생일 의례	정규성	하	(45)	11.24(4.02)c	28.20***	
		중	(43)	13.23(3.49)b		
		상	(147)	15.51(3.30)a		
	관습성	하	(72)	12.25(4.05)b	16.48***	
		중	(50)	14.82(3.01)a		
		상	(113)	15.33(3.49)a		
	계획성	하	(70)	12.03(3.68)c	25.21***	
		중	(65)	14.17(3.52)b		
		상	(100)	15.92(3.40)a		
주말여가 의례	참여 기대	하	(24)	10.79(3.53)b	28.25***	
		중	(37)	11.84(3.75)b		
		상	(174)	15.28(3.42)a		
	감정적 투자	하	(23)	9.61(3.14)b	25.35***	
		중	(43)	13.63(2.74)a		
		상	(169)	15.08(3.73)a		
의미 부여	하	(24)	10.79(3.12)b	32.13***		
	중	(43)	11.84(3.56)b			
	상	(168)	15.40(3.45)a			
생일 의례	정규성	하	(7)	8.71(4.57)b	9.85***	
		중	(21)	12.90(3.51)a		
		상	(212)	14.57(3.73)a		
	관습성	하	(10)	11.70(5.58)	2.76	
		중	(35)	13.80(3.74)		
		상	(195)	14.47(3.76)		
계획성	하	(28)	12.39(4.77)b	15.64***		
	중	(70)	12.76(3.78)b			
	상	(142)	15.35(3.33)a			

<표 9> 계속

변 인	가족의례	구성요소	구분	(N)	M(SD)	F값
결혼 만족도	생일 의례	참여 기대	하	(4)	7.25(3.20)b	12.24***
			중	(15)	11.47(2.85)a	
			상	(221)	14.57(3.75)a	
	생일 의례	감정적 투자	하	(8)	8.50(3.38)c	26.10***
			중	(42)	11.76(3.17)b	
			상	(190)	15.05(3.59)a	
	명절 의례	의미 부여	하	(6)	11.50(7.04)b	16.04***
			중	(34)	11.24(3.29)b	
			상	(200)	14.85(3.58)a	
	명절 의례	정규성	하	(10)	11.90(5.78)a	3.12*
			중	(15)	12.87(2.88)a	
			상	(216)	14.44(3.78)a	
	명절 의례	관습성	하	(22)	11.68(4.74)b	7.11**
			중	(28)	13.32(3.67)ab	
상			(191)	14.66(3.70)a		
명절 의례	계획성	하	(38)	12.37(4.43)b	1.40***	
		중	(60)	13.25(3.61)b		
		상	(143)	15.15(3.54)a		
명절 의례	참여 기대	하	(10)	11.30(4.76)b	5.23**	
		중	(26)	13.00(4.35)b		
		상	(205)	14.54(3.68)a		
명절 의례	감정적 투자	하	(28)	11.46(4.68)b	14.19***	
		중	(72)	13.47(3.10)a		
		상	(141)	15.18(3.72)a		
명절 의례	의미 부여	하	(34)	11.32(4.23)b	13.62***	
		중	(71)	14.17(3.10)b		
		상	(136)	15.00(3.81)a		

*p<.05, **p<.01, ***p<.001

필요하다고 본다.

명절의례에 따른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명절의례의 정규성, 관습성, 계획성, 참여 기대, 감정적 투자, 의미 부여의 상집단과 하집단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명절의례의 실행 정도가 높은 집단의 아내가 결혼생활을 더 만족스러워하였다. 이는 아내가 명절의례로 많은 갈등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명절의례의 갈등 사유를 잘 극복하여 그 속에서 즐거움이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명절의례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례의 참여기대, 감정적 투자, 의미 부여의 평균이 정규성, 관습성, 계획성보다 높게 나타나 가족의례의 높은 정서적지지 기능을 확인하였다. 가족의례 종류별로는 저녁식사의례의 감정적 투자 정도가 주말여가의례나 생일의례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저녁식사의례는 과반수 이상이 일주일에 2-3번 이상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달에 3-4번 이하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저녁식사를 함께 하지 못하는 가정은 과반수 이상이 '일이 바빠서'와 '자녀 학원 공부 등의 이유'로 저녁식사의례를 정규적으로 갖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주말여가의례 활동은 '외식', '근교나들이', '쇼핑 및 함께 장보기'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가족봉사활동'이나 '게임' 등의 참여는 매우 적었다. 주말여가의례를 정규적으로 보내기 어려운 이유로는 '일이 바빠서'와 '가족 공동의 시간 부족'으로 나타났다.

생일의례 활동 중 '생일상 차리기'는 남편과 자녀생일에는 주요한 생일 활동이었지만, 아내생일에는 주된 생일 활동이 아니었다. 또한 생일의례와 관련해 아내가 갈등을 겪는 이유로는 '자신의 생일을 가족들이 잘 잊어버려서'로 나타났다.

명절의례에 갈등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가사부담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다.

셋째, 저녁식사의례, 주말여가의례, 생일의례, 명절의례의 실행 정도가 높은 집단의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대해 몇 가지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뇌에는 식사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주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특히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거나 밥을 먹는 모습을 볼 때 그 양이 증가하여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SBS, 2009). 이처럼 가족식사가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식사를 가족의례라는 관점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저녁식사의례를 통해 가족구성원은 주말여가의례나 생일의례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다시 한 번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식사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가족식사가 가족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데 긍정적 자원이 되는 의례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저녁식사를 위해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으며 주된 이유는 자녀의 학업문제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가정임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현상은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바쁜 현대생활 속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저녁식사가 쉽지 않음을 말해주며 가족이 함께 저녁식사 하는데 의도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콜롬비아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 가족과의 정기적인 식사는 청소년 자녀의 비행을 예방해주고 아이의 지능과 건강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SBS, 2009). 이처럼 저녁식사의례는 자녀가 성장할수록 실행하기 어려워지지만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침이나 주말 및 휴일에 함께 식사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녁식사의례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내는 명절을 통해 가사노동부담과 가부장적 계급관계를 경험한다는 정현숙과 유계숙(2006)의 주장에서처럼 본 연구에서도 가사노동부담이 명절의례의 주된 갈등 이유로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 경험이 명절을 힘든 의례로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명절의례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과 대조적으로 명절의례의 실행정도가 높은 경우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명절로 인해 겪는 갈등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다양한 갈등 사유를 잘 극복하여 명절의례 속에서 즐거움이나 의미를 발견할 경우 명절의례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명절 관습을 만들거나 명절행사에 대해 가족구성원이 함께 의논하여 아내의 어려움을 나눔으로서 건강한 명절의례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가족의례의 실행정도가 높은 집단의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례가 초기 부모기 동안의 결혼만족도를 보호해준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로, Fiese 등(1993)은 가족의례가 단순히 가족활동에 가족구성원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면에 즐거움을 느끼고 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등의 주관적 측면을 포함하는 활동이며, 이런 주관적 측면이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보호해준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측면 이외에도 정규성, 관습성, 계획성과 같은 가족의례의 구조적 실행 정도가 높은 경우에도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에 규칙적인 관습이 있을 때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는 더 유능감을 느낀다는 연구(Springer et al., 1985; Brody & Flor, 1997)와 의례의 정규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생활에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연구(Eaker & Walters, 2002)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즉, 가족의례의 구조적인 실행은 아내에게 유능감을 제공하고 가족생활에 안정감을 제공해주어 아내가 더 높은 결혼만족도를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가족의례의 실행정도가 높을 경우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가족의례가 갖는 주관적 측면 뿐 아니라 정규성, 관습성, 계획성 등의 모든 구성요소들에 의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가족의례의 구조적인 실행과 더불어 즐겁고 의미있는 가족의례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은 아내의 결혼만족을 높게 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가족의례는 가족구성원이 친밀감, 결속감 등의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여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 중 가장 일상적으로 접하는 의례인 저녁식사의례는 자녀의 학업 문제 등 다양한 저해 요인 속에서도 대다수의 가정에서 아직까지 잘 지켜지고 있다. 식사 후에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해주며 좋아하는 사람이 함께 식사할 때 그 양은 증가하여 만족감과 행복감까지 느끼게 한다. 가족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사회이슈에 이르기까지 대화로 이뤄진 가족식사는 이러한 호르몬의 양을 증가시켜 주말여가나 생일 이벤트에서 보다 더 큰 감정과 의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의례는 공동보다는 각자의 생활을 추구하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중요한 의례라 하겠다.

둘째, 가족의례의 구조적인 실행은 아내에게 유능감과 가족생활의 안정감을 제공해주고, 가족의례의 감정적 투자, 의미 부여와 같은 주관적 측면은 아내에게 친밀감과 결속감 등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가족의례의 기능은 아내가 더 높은 결혼만족도를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구조적인 실행과 더불어 즐겁고 의미있는 가족의례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아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표본집단을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가족의례는 자녀의 연령에 영향을

받으므로 가족의례 구성요소들의 점수가 다소 높게 나온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자녀의 연령 범위를 넓게 하여 자녀연령대별로 가족의례의 실태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이혼, 사별, 별거, 조손가정을 제외한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족의례는 가족이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에서 가족이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이혼과 사별 등의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의례가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는데 기여하는 과정을 밝히는 연구도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민녀(2004). **K-MSI를 활용한 기혼자의 결혼만족도-가족생활 주기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채규만(200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655-671.
- 김화자·윤중희(1990).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국민학교, 중고등, 대학교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55-170.
- 문옥표(1997). 가정의례에 나타난 한국인의 예절.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79·77, 153-180.
- 박민자(2006). 행복가족의 요소와 의미. **가족과 문화**, 18(4), 183-205.
- 박혜인(2001). 가정의례의 변화와 21세기의 지향 모색. **한국가족복지학**, 6(1), 31-54.
- 안동선(1982). **주부의 여가유형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에 거주하는 비취업 주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정현숙(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민족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23-252.
- 옥선화·김주희·박혜인·신화용·한경혜·고선주(1998).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1: 서울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1), 157-182.
- _____. (2000).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2: 농촌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0), 157-180.
- 유계숙(2004). 건강가족의 요소에 관한 연구-가족체계와 건강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25-42.
- 유영주(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 김밀양(2004). 가족의례. 유영주·강학중·김밀양·김순기·김연·박정희·배선희·손정영·안재희·양순미·오윤자·이인수·이정연·이창숙·전영자·최희진·홍성례·홍숙자(편). **새로운 가족학**(269-291). 서울: 신정
- 이기숙(2003). 가족의례: 한국인의 죽음의례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 175-208.
- 이기영·김의숙·구혜령(1995). 부부의 공유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3), 113-126.
- 이은봉(1998). 한국 의례의 구조와 의미-한국인의례의 목적과 기능, 형태와 종류를 중심으로. **한국종교학회**, 16(1), 69-90.
- 이정우·김명나(1993). 주부의 가정의례에 대한 인식·행동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결혼식·제사 및 회갑연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8, 23-50.
- 정현숙(1996). 도시 부부의 결혼만족도 변화 패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51-60.
- _____. 유계숙(2006). **가족관계**. 서울: 신정.
- 현경자·김연수(2002). 기혼남녀의 결혼만족 이유에 대한 내용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9(5), 225-263.
- SBS(2009). SBS 스페셜 173회-밥상머리의 작은 기적. 2009. 7. 29.
- Bossard, J. & Boll, E.(1950). *Ritual in family living*.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rody, G. H. & Flor, D. L.(1997). Maternal psychological functioning, family processes, and child adjustment in rural, singleparent, african american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000-1011.
- Burr, W. R., Leigh, G. K., Day, R. D., & Constantine, J.(1979). Symbolic interaction and the family.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2(42-111). N.Y.: The Free Press.
- Doherty, W. J.(1997). *The intentional family: How to build family ties in our modern world*. MA: Addison-Wesley Publishing.
- Eaker, D. G. & Walters, L. H.(2002). Adolescent satisfaction in family rituals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A developmental systems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4), 406-414.
- Fiese, B. H.(1992). Dimensions of family rituals across two generations: Relation to adolescent identity. *Family Process*, 31, 151-162.
- _____. B. H. & Kline, C. A.(1993). Development of the family ritual questionnaire: Initial reliability and validation stud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6, 290-299.
- _____. B. H., Hooker, K. A., Kotary, L., & Schwagler, J.(1993). Family rituals in the early stages of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633-642.
- _____. B. H., Tomcho, T. J., Douglas, M., Josephs, K., Poltrock, S., & Baker, T.(2002). A reivew of 50 years of research on naturally occurring family routines

- and rituals : Cause for celebra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 381-390.
- Hawkins, J. L.(1968). Association between companionship, host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647-650.
- John, D. F.(1990). Rituals and family strength. *Marriage and The Family, 19(1)*, 39-48.
- Leon, k. & Jacobvitz, D. B.(2003). Relationships between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and family ritual quality :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Family Process, 42*, 419-432.
- Roach, A. J., Frazier, L. P., & Bowden, S. R.(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537-546.
- Stinnett, N. & DeFrain, J.(1985). *Secrets of strong families*. Boston: Little, Brown.
- Sprunger, L. W., Boyce, W. T., & Gaines, J. A.(1985). Family-infant congruence: Routines and rhythmicity in family adaptations to a young infant. *Child Development, 56*, 564-572.
- Valenti, R.(1997). *The effect of utilizing positive behavior in marriage on marital satisfaction and intimac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Seton Hall University.
- Wolin, S. J. & Bennett, L. A.(1984). Family rituals. *Family Process, 23*, 401-420.

- 접수 일 : 2009년 09월 15일
- 심사 일 : 2009년 10월 05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12월 23일